

부장님 대신 ‘책임매니저’… 상대평가·승진연차 없애

현대·기아차 인사제도 개편

6단계 직급 2단계로 축소 통합
일 중심 자율적·수평적 문화로



현대·기아자동차가 급변하는 미래 경영환경 대응과 기업문화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5급사원부터 부장까지 6단계였던 직급이 매니저와 책임매니저 등 2단계로 축소 통합됐고 승진 연차도 폐지됐다.

최근 도입된 출퇴근·점심시간 유연화, 복장 자유화 등에 이어 직급이 축소 통합되며 연공중심·수직적인 위계구조라는 평가를 받은 현대차그룹의 조직문화가 일 중심의 수평적 문화로 바뀔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9월부터 급변하는 미래 경영환경 대응과 기업문화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성’과 ‘기회’를 확대하고, ‘일’ 중심의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호칭, 평가, 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개편됐다. 일반직 직급은 기존 직위와 연공 중심의 6단계에서 역할에 따라 4단계로 단순화됐다.

이에 따라 5급사원과 4급사원은 G1으로, 대리는 G2, 과장은 G3, 차장과 부장은 G4로 통합되며, 호칭은 더욱 단순화해 G1~G2는 ‘매니저’, G3~G4는 ‘책

〈현대·기아차 일반직 직급/호칭 개편〉

기준	변경	
직급/호칭	직급	호칭
부장	G4	책임매니저
차장	G3	
과장	G2	
대리	G1	매니저
4급 사원		
5급 사원		

임매니저’ 2단계로 통합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직급과 호칭체계 변화를 통해 직원들이 연공이 아닌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하고 수직적인 위계구조가 개선돼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원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고 승진연차 제도는 폐지된다.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단순히 평가 관점에서 벗어나 직원육성 관점의 성과관리와 상호협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상대평가체제에서는 불필요한 경쟁과 비율에 따른 평가등급 할당으로 평가와 과정상이 불가피했으나, 절대평 가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대평가 도입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에서 동료간 업무역량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수인 승진연차를 폐지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G3로 승진한 직원이 바로 다음해 G4 승진 대상자가 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 승진제도는 사원과 대리는 4년의 승진연차, 과장과 차장은 일정수준의 승진포인트가 필요해 연공중심으로 운영돼왔다. 현대·기아차는 직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임직원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했다”며 “전통적 제조업의 인사제도인 연공 중심, 수직적인 위계구조에서 탈피해 새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켜 미래산업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일’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촉진과 발탁인사 등 우수인재에게 성장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원 인사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기존 이사대우와 이사, 상무까지의 임원 직급 체계를 상무로 통합해 기존 사장 이하 6단계 직급을 4단계로 축소시켰다. 또 연말에 실시되는 정기 임원인사도 경영환경 및 사업전략 변화와 연계한 연중 수시인사 체계로 전환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권수안 건설연 산업혁신부원장(왼쪽부터), 김광윤 SK건설 인프라O-E혁신실장, 최판철 SKT 기업사업본부장, 윤영철 현대건설기계 전무(기술개발본부장), Mark Nichols 트림블 부사장이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4개 기관과 ‘5G 스마트건설’ 맞손

건설현장 전 과정 5G·AI 전환 한 뜻

SK텔레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대건설기계, SK건설, 트림블 등과 함께 ‘5G 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5개 기업·기관은 건설현장 설계부터 운용·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5G·AI 기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 연12% 씩 급성장하는 세계 스마트 건설 시장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현대건설기계, 트림블 등 3개사가 맺은 업무 협약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우선 5개 기업·기관은 내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SOC실증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기존 건설 현장과 스마트 건설 현장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직접 비교 측정·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건설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적용 프로세스를 확립할 예정이다. 5G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에는 ▲드론 활용 자동 측량 ▲AI 자동화 장비 활용 시공 ▲IoT 측위센서와 실시간 고화질

영상 관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AI와 IoT 기술을 제공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천SOC실증센터 내 실험 부지를 제공하고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5G 스마트건설 기술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 기반 확립에 나선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능형 건설 중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SK건설은 비교 실험을 위한 건설 현장 시나리오 개발 및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트림블은 건설현장 데이터 분석과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한다.

5개 기업·기관은 10월 실증을 시작해 평가실험 결과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향후 5G 스마트 건설기술의 국

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최판철 기업사업본부장은 “스마트 건설 현장은 초저지연·초연결이 가능한 5G 네트워크가 필수”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각 분야 대표 기업·기관들이 5G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건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물론 안전한 건설 현장 구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KT, 골목상권·동네빵집 활성화 돋는다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 제휴서비스 익선동 등 45개 매장 할인쿠폰 제공

SK텔레콤이 ‘열린멤버십’으로 ‘골목상권 및 동네빵집’ 활성화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는 ‘T멤버십 열린거리’, 전국 동네빵집을 홍보해주는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T멤버십 열린거리’(이하 ‘열린거리’)는 비용문제로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T멤버십’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와주는 ‘열린멤버십’의 골목상권 대상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의 5GX클러스터인 익선동과 성수동에서 T멤버십 쿠폰을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멤버십을 이용하면 ‘열린거리’ 메뉴에서 익선동, 성수동 소재 45개 매장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열린거리를 익선동, 성수동 골목 상권을 시작으로 전국 핫플레이스를 찾아갈 예정이다. 첫 열린거리로 선정된 익선동과 성수동은 최근 짚은 고



SKT모델이 ‘T멤버십열린거리’인 익선동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SK텔레콤

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이하 ‘열린베이커리’)는 기존 ‘전국 베이커리’를 확대 개편한다. 또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해 원도 베이커리 특성을 활용, O2O(온·오프 연계) 서비스 및 온라인 배달 등을 지원해 재고부담을 줄이고 매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열린멤버십은 T멤버십을 사회적기업 및 중소 상공인들과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T멤버십은 이미 지난해부터 ‘엘리먼트’, 오티스타, 마리몬드, 모어댄

등 여러 사회적 기업과 제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에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기업 ‘엘리먼트’와 ‘동구밖’은 지난해 8월 T Day를 통해 매출이 전월대비 약 200% 증가했고, 지난 6월 제휴한 ‘마커스’는 한 달 전체 매출의 85%가 T 멤버십을 통해 발생하기도 했다.

또 SK텔레콤은 열린멤버십을 도입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멤버십 플랫폼을 개방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제휴처와 상생하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패밀리’ 경험하세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시승행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랜드로버 공식 전시장에서 고객 시승행사 ‘디스커버리 어드벤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어드벤처 시승행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업인 디스커버리 패밀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마련된 행사다.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디스커버리 어드벤처 배너를 클릭한 후

원하는 모델 시승을 신청한 고객은 누구나 가까운 공식 전시장에서 뉴 디스커버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시승할 수 있다.

올해로 탄생 30주년을 맞이한 랜드로버 뉴 디스커버리는 전지형 주행 역량과 일상적인 실용성이 기준을 높인 대형 프리미엄 패밀리 SUV다.

2019년형 모델은 세련된 디자인과 보다 강력해진 고효율 파워트레인은 물론 랜드로버의 최첨단 주행 시스템과 다양한 주차 보조 기능 등의 편의 장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전국 랜드로버 공식 전시장에서 고객 시승행사 ‘디스커버리 어드벤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들이 대거 적용돼 상품성이 한층 강화됐다.

/정연우 기자 yw964@